[기획연재 7] 이스라엘 회복과 재림
구속사적으로 본 한국교회와 이스라엘 선교

김해리 / 1994

독립국가 이스라엘 탄생

１９４８년 ５월 １４일 팔레스틴에 현재의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하였다. 과거의 역사에서 독립시까지 역사적 사건들을 고찰해 본다.

< A.D. 70-1880 >

AD ７０년 이후 １８８０년가지 예루살렘과 팔레스틴 지역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５천명에서 어떤 때는 이만오천을 넘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민족은 꾸준히 「시온」으로 돌아오는 꿈을 버리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전세계로 흩어져 팔리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민족성과 율법 (토라) 그리고 랍비의 가르침과 안식일과 전통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매년 유월절 행사 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를 되풀이 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 알리야인파 >

알리야 (aliyah)라는 말의 뜻은 「그 땅으로 올라가라」이다. 그 땅은 곧 시온이다. １９세기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이 인파는 크게 세 번 있었다. 이 흐름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성장해 가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했다.

알리야 인파의 첫 번째는 １８８０년대에 시작되었다. １９０３년까지 이어진 이 인파의 결과로 １０, ０００여명의 이주민이 그 땅으로 돌아와 농업에 정착했다. 이들은 주로 동부 유럽과 제정 러시아와 회교권으로 부터의 이주였다. 두 번째 인파는 러시아의 키쉬네프에서 있었던 포그롬 사회주의 시온주의자들의 영향과 새로 형성된 유대민족자금, 키부츠 운동, 유대인 자체방위기구 조직 등으로 박차가 가해져 일어났다. １９１４년까지 약 ８５, ０００명이 그 땅으로 이주해 왔다.

제３차 알리야 물결은 １９１９년부터 １９２３년까지 일어났으며 이로인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성장해 가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

http://file.cgntv.net

< 탄생을 위한 역사적 사건들 >

1. 시온주의자대회 (1897)

윌리엄 핵클러의 도움으로 데오도르 허즐은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유대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시온주의자 대회라고도 한다. 이 대회에서 허즐은 유대국가의 회복을 선언했다. 그는 50년 내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적 선언을 했었다. 이 선언이 있은 후 정확히 50년 후에 1947년 11월 29일 유엔은 팔레스틴에 유대인 국가건설을 승인했다.

2. 발포아 선언 (1917)

영국정부는 1917년 11월에 발포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서 영국은 유대민족에게 팔레스틴에 고국을 회복시켜줄 것을 약속했다. 이해 같은 달에 소련에서는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다. 장차 유대인들을 박해할 새로운 세력의 태동을 보게된 것이다.

3. 예루살렘 터키의 지배에서 해방 (1917)

1917년 12월 9일에 알렌비 장군은 예루살렘을 터어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켰다. 같은 날 유대인들은 BC 164년에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하누카 축제를 위하여 촛불을 켰다.

4. 이스라엘 국가공포 (1948)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장군 데이비드 벤 구리온에 의해 이스라엘 국가가 공포되었다. 이 해는 허즐이 1897년에 예언적 선언을 했던 때로부터 정확하게 50년째 (희년) 이 되는 해였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언의 성취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이 예언에는 한결같이 그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사방에서 모으시겠다고 하는 것과 특히 북방에서 이끌어 내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호에서 보았듯이 흩어졌던 유대민족이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문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고토로 돌아왔으며, 특히 북방에서는 건국 당시에도 최대의 인파가 몰려왔고 현재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극적인 사건도 최대의 인파가 북방인 소련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예언의 성취이다.

윌리암 헤더릭슨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상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사방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유대민족이 B.C.6세기경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７０년 후에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성취된 것이다. 또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포로들을 여러 나라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 팔려갔던 유대인들이 ７０년 후에 근처 여러나라로부터 즉 동서사방으로 부터 귀환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회복과 이스라엘 독립국가 탄생은 성경의 예언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논박하고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 １６장 １４절~１５절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바벨론으로 부터의 귀한이 아니고 금세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１. 예레미야 ３０장 ２４절 내용은 이러한 사건이 「말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２. 에스겔 ３６장 ２４절~２６절의 내용은 유대 백성이 고토에 돌아온 후에 맑은 물로 정결케 하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귀환시대가 아니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데렉 프린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확실히 제１출애굽은 장엄하고 놀라운 표적이 따랐다. 대조적으로 금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유대민족이 여러나라로부터 탈출하는 제２출애굽에 대한 모습은 간결하면서도 자세하게 그려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제２출애굽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이하게 얽힌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적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을 생각할 때 나는 제２출애굽의 이적은 제１출애굽보다 더욱 위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 출처 - 온누리신문**